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속도낸다

13일 건축설계공모 참가등록 · 설명회 실시
총사업비 390억원 투자 2020년까지 완공

전북도는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와 산·학·연간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자,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내 1만3,200㎡에 건축연면적 1만5,000㎡로 규모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시설, 전시·홍보실, 회의장 등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전북특구본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전북도는 9월 27일(수)부터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해 10월 13일(금)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를 하고, 응모작품은 12월 13일(수) 접수 받는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8년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축,구조,토목,조경,설비 등 제반 분야의 계획과 녹색건축계획, 에너지 절약계획, 장애물없는 생활환경계획, 사업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외부공간계획,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상징성, 효율성 및 경제성이 반영된 조형계획을 세워 전북특구의 2대 특화분야(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품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응모 작품에 대한 심사는 건축 분야 대학교수 및 건축사 등 15인의 심사위원이 12월 20일(수) 실시 할 예정이며, 12월 22일(금)에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1등 작품 설계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타 입상자에게는 기타 입상자 수(1인~4인)에 따라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미래산업과(☎063-280-2178)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전북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00억원, 취업유발효과 97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연휴 끝내고 열린 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전북형 예비마을기업 8개소 지정

정읍 '해아람' 영농조합법인 등
연말까지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체성, 공공성, 자립경영 및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읍시 '해아람' 영농조합법인 등 총 8개소를 '전북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했다.

'전북형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마을단체와 법인을 사전에 발굴,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해아람'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곡식과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인 '곡물바(과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작년 쌀 가공식품 상품화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업성과 공동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10월말 경남 김해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의 '예비마을기업 경진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연말까지 컨설팅 및 상품개발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 초 마을기업 신규신청(행정안전부 지정)시 가점이 주어지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2년간 총 8,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도 전해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전북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 102개의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컨설팅 및 실무교육, 박람회 참가 등 판로개척, 방송매체 홍보지원 등을 통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정치아카데미 수강신청 하세요"

도선관위, 희망자 40명 모집
13일까지 이메일·팩스 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광주, 전남지역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선관위에서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 아카데미'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13일까지 이메일(nec-hongbo@hanmail.net) 또는 팩스(0505-058-2507)로 접수하면 된다.

'정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해설, 불공정 인터넷선거 보도 사례 및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입후보 안내,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선거방송연설 이해와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거나 또는 도선관위 누리집(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간담회서 재판관 전원 동의"

청와대가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임기 만료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 상태에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춰 헌재의 안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면서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진안 고원화목원 13일 '문 활짝'

850종 61만여본 식물 보존
고품질 산림서비스 제공

진안에 화목원이 조성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고품질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원화목원이 오는 13일 개원한다.

고원화목원은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일원에 조성됐으며 반경 10km 이내에는 지덕권 국립산림치유원 예정지가 있다.

또 진안산약초타운과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데미샘자연휴양림 등과 연접해 있다.

고원화목원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꽃나무를 주제로 조성됐는 데 구름국화와 한라구절초 등 850종 약 61만본의 식물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아열대 온실을 조성해 내륙 산간지대에서 볼 수 없는 하와이무궁화, 금호선인장, 바나나류 등 아열대 식물도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원화목원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